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11.16.(월) 10:00

기후대응위, COP31에서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확대

- 4건의 부대행사 개최,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·정책 및 민관협력 사례 공유
- ICCN 포럼 및 연례보고서 발간행사 참여… 한국의 상설 기후시민회의 사례 소개
- 영국·호주·캐나다·칠레 등 기후정책기구 대표와 양자면담,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 논의

□ **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**(이하 '기후대응위', 민간 공동위원장 이창훈) 대표단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**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1)**에 참석(11.9~15)하여 **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경험**을 **국제사회와 공유**하고, **주요국과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** 방안을 **논의**하였다.

○ 기후대응위는 이번 COP31 계기 총 **4건의 부대행사를 개최**하고, **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(ICCN) 포럼 참석** 및 **주요국 기후정책기구**와의 **양자면담** 등 **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 확대**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.

□ 기후대응위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COP31 한국 홍보관에서 총 4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**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경험을 공유**하였다.

○ 11월 10일 개최된 **「NDC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행동」** 행사에서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(ICLEI)와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(LEAP),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**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후목표 이행 방안**을 **논의**하고,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후행동 사례를 공유하였다.

○ 11월 11일 개최된 **「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감축경로 법제화」** 행사에서는 한국의 **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**과 이에 따른 **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의 법제화 경험**을 **소개**하고, **영국·핀란드·캐나다·EU·호주** 등 **주요국 관계자들이 각국의 제도와 정책 사례**를 **공유**하였다. 특히 **미래세대의 권익 보호와 기후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**를 위한 **법적·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논의**하였다.

○ 같은 날 개최된 「**국제감축사업 협력 활성화**」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전기 전동차 전환, 몽골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, 온두라스 산림 분야 감축사업 등 **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협력 사례를 공유**하였다. 네팔·몽골·온두라스 등 협력국 관계자와 국내·외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국제감축사업 확대와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.

○ 11월 12일 개최된 「**2026년 넷제로프렌즈 사업 성과**」 행사에서는 **청년들의 기후행동 아이디어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**한 **사례를 소개**하였다. 아모레퍼시픽과 풀무원 등 참여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넷제로프렌즈 사업 참여 경험을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 기후대응위는 **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(ICCN) 포럼**에 **참석**하여 **각국 기후정책기구**와 **기후 거버넌스 발전** 및 **정책 이행력 강화**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특히 11월 13일 개최된 ICCN **연례보고서 발간행사**에 **참석**하였으며, 이번 **연례보고서에는 한국이 지난 5월 출범시킨 상설 기후시민회의 사례가 반영**되었다.

○ 한국의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정책을 학습하고 숙의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상설 참여기구로서, 이번 보고서 수록은 한국의 시민참여형 기후 거버넌스를 국제사회에 알린 뜻깊은 성과이다.

○ 기후대응위는 ICCN **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**으로서 각국 기후정책기구 간 정책 경험과 제도적 혁신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고, **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 이창훈 위원장은 주요국 기후정책기구 대표와 네 차례의 양자 면담을 갖고, 기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**호주 기후변화청(CCA) 맷 킨(Matt Kean) 의장, 캐나다 기후연구소(CCI) 릭 스미스(Rick Smith) 소장, 칠레 카밀라 페르난데즈(Camila Fernandez)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의장**과의 면담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, 중장기 기후목표 이행 및 독립적인 기후정책 기구의 역할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, ICCN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또한 **레이첼 카이트(Rachel Kyte) 영국 기후특별대표**와 면담을 통해 양국의 COP31 주요 관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국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기후대응위는 이번 COP31 참석이 **한국의 기후정책 및 거버넌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**하고, **주요국 기후정책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**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.

○ 앞으로도 ICCN을 비롯한 **국제협력 채널**을 적극 **활용**하여 **각국과의 정책 교류 및 공동 협력을 확대**하고, **국제협력의 성과**가 국내 기후정책의 **실행력 강화**와 **국제사회**의 **실질적인 기후행동**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 강윤호 (044-200-1921)
		담당자	사무관 전은세 (044-200-19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